경제혁신 3개년 계획 경제의 틀을 바꾸면 미래가 달라집니다.

보 도 자 료

배 포 일 시	2015. 1. 14 / 총 23매, 상세자료 별책
보 도 일 시	2015. 1. 15 10:00 이후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역동적 혁신경제로 경제 대도약 반드시 이루겠습니다.

- 미래창조과학부 등 5개 부처, 「역동적인 혁신경제」 업무보고 -

□ 미래창조과학부 등 5개 부처는 1.15(목) **'경제혁신 3개년 계획Ⅱ' 업무보고를 통해 '역동적 혁신경제' 실현을 위한 계획**을 **보고**하였음

역동적 창조경제 구현 : 새로운 **"기업"**이 탄생하고 성장

1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 창조경제생태계 전국 확산

○ 상반기내 **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 개소**를 완료하고, **지역별 창조경제 시범·실증사업**을 본격화하여 지역혁신을 견인

* (예시) **수소자동차 생태계** 실증, **제로 에너지** 마을, **유통 사물인터넷** 허브 등

- **판교 창조경제밸리센터**를 **게임산업 클러스터**로 **육성**하고, **강남**에 창업자·엔젤투자자 등이 집적된 **하이테크 창업캠퍼스를 설치**

○ 아이디어의 조기 사업화를 **원스톱으로 지원하기 위해** 지역별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 **법률·금융·마케팅·해외진출** 등 종합 지원

* (예시) **창조경제혁신센터 내 파이낸스 존** 설치, 창조경제 혁신센터 펀드(17개 지역 총 6,000억원 규모) 지원 등

2 창업 도약기(Death Valley) 극복 등 막힘없이 성장하는 기업생태계 구현

○ 창업의 질 제고를 위해 교수·연구원 등 **고급 기술창업**(5천여명)을 지원하고, **창업기업 성장률 제고**를 위해 **Death Valley(3~7년차) 극복**에 정책 역량 집중*

* 제품 고도화 기술개발 + 안정적 사업 공간 제공 + 시설·운전 자금 융자 등

○ 공영 TV 홈쇼핑 등 중기제품의 시장진입을 촉진하고, **한국형 히든 챔피언** 발굴·지원을 체계화하여 **2017년까지 100개 육성**('13년 63개)

3 모험자본 중심의 창조적 금융생태계 활성화 : 실물 · 금융 선순환

○ **창업**(투자자금 3조원 지원) → **성장**(신성장산업 등에 100조원 공급) → **회수**(**중소M&A 특화 증권사 출범**) → **재도전**(**연대보증 면제 확대 등***)의 **선순환 금융생태계** 조성

* 창업→비창업까지로 면제 대상 확대, 재창업 신규자금 5년간 최대 1.5조원 공급

○ **'건건 사전규제 → 원칙 사후점검'**으로 전자금융 규제 패러다임을 전환(ActiveX 제거)하고 **'핀테크 지원센터 설치'** 등 핀테크 산업 육성 추진

선제적 미래대비 투자 : 새로운 "산업" 창출 및 기존산업 스마트화

1 융합을 통한 미래성장동력 창출 : 기존산업 스마트화, 미래원천기술개발 등

○ ICT 융합 확산* 및 제조업 혁신 3.0**으로 **주력산업의 스마트화를 촉진**하고, **사이버 보안**(시장규모 : '14. 7.6조원 → '17. 14조원) 등 SW 기반 신산업·신시장 창출

* (창조비타민) 57개('14) → 90개('15) / ** (스마트 공장) 1천개('15) → 4천개('15) →1만개('20)

- **SW 글로벌 전문기업**('14, 20개 → '17, 50개), 디지털 콘텐츠 펀드 확대 등 디지털 영토 확장

○ **바이오·기후·나노·재난안전** 등 유망 시장 선점을 위한 **원천기술 확보를 추진('15년 2.8조원)**하고, 조기산업화(인허가 단축, 실증 등) 지원으로 산업생태계 구축

○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수요를 출연(연) 등이 밀착 지원하는 '기업공감 원스톱 서비스'를 실시하고, **SCI 논문건수 위주 평가의 원칙적 금지** 및 **'장롱특허 최소화'** 추진

2 국민 누구나 이용하는 방송서비스 혁신으로 방송산업 활성화

○ EBS의 **MMS(다채널방송) 시범서비스**를 **실시**하고, 광고시장 활성화를 위해 **광고 총량제 개선, 가상·간접 광고 규제 완화** 추진하되,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지상파 및 유료방송간 차별성은 유지

전략적 해외진출 촉진 : 새로운 "시장"을 개척하고 확대

1 FTA 전략적 활용으로 '동북아 비즈니스 중심' 도약 (수출 6천억불, 외국인 투자 200억불)

○ **FTA플랫폼**(美·中·EU 등)**을 활용하여 '동북아 비즈니스 중심*'** 도약을 추진하고, **중소·중견기업의 FTA 활용률 제고**('14년 60.4%→'15년 65%)

* 우리기업의 중국 내수 진출 확대, 중국기업의 글로벌 진출 및 제3국의 중국진출 거점화

2 정상외교 활용 및 중소·중견기업의 해외진출역량 강화

○ **신흥지역 정상외교** 강화, 문화콘텐츠·보건의료 등 해외진출 다변화

○ **내수기업**의 **수출기업화**를 위해 무역·기술 전문인력 지원을 확대('15년 2,400개사), **전자상거래 수출(역직구)도 활성화**(7개몰, 1,500개사)

[행사 개요]

□ **미래창조과학부**(이하 '미래부', 장관 : 최양희), **산업통상자원부**(이하 '산업부', 장관 : 윤상직), **방송통신위원회**(이하 '방통위', 위원장 : 최성준), **금융위원회**(이하 '금융위', 위원장 : 신제윤), **중소기업청**(이하 '중기청', 청장 : 한정화) 등 5개 기관은 **1월 15일(목) '역동적 혁신경제'의 주제로 2015년도 업무계획**을 **보고**함

[보고 내용]

1 역동적 창조경제 구현

창의 (Creativity)	새로운 **기업**이 탄생하고 성장하는 **"창조경제"**

◇ **상반기 중 17개 '창조경제혁신센터' 구축 완료**

◇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 **법률·금융·해외진출 등 원스톱 지원**

◇ **판교에 '창조경제밸리'를 조성**하여 창업·혁신 인프라 구축 및 창작생태계 육성

◇ **고급 기술창업자 5천명 양성** 및 **하이테크 창업캠퍼스 구축(강남 역삼동)**

◇ **창업 이후 3~7년 도약기('죽음의 계곡') 극복**을 위해 R&D·자금 패키지 지원

◇ **기술금융 20조원, 신성장산업 분야 100조원** 등 모험 자본의 시장 공급 확대

◇ 벤처 투자의 회수 활성화를 위해 **중소기업 M&A 특화 증권사 육성 추진**

◇ **연대보증 면제 확대(창업기업 → 비창업기업)** 및 재도전 자금지원 확대

(1) 혁신적 창조경제생태계 확충 : 분절적 창조생태계 ⇨ 유기적 연계

1 (창조인프라) 전국 **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**의 **출범을 상반기에 마무리**하고, 범정부·지자체·대기업 협력 하에 **지역특성에 맞는 핵심사업 발굴**

○ 핵심사업의 기술·역량 검증과 사업화 가능성 검토, 비즈니스 모델 개발 등을 위한 **파일럿 프로젝트 실시와 실증** 등 **조기에 성과모델 창출**

핵심사업(안)
▪ 자동차와 생활형 창업, 수소자동차 생태계 실증
▪ 바이오 허브, 제로에너지 마을 실증
▪ 글로벌 생활유통·문화, 유통 IoT의 허브 실증

○ 성공모델을 바탕으로 **규제개선** 등 **관련 법·제도 개선**을 **병행**하여 타 지역과 기업으로 확산(“**핵심사업 관련 기업**들이 생겨나는 **플랫폼**”)

2 (**원스톱 프로세스 구축**) 혁신센터를 통해 **아이디어 사업화**를 위한 **원스톱(One-Stop) 서비스 제공**

○ **아이디어 수준과 숙성 단계에 따른 다양한 트랙 구축**

기업 수요기반의 아이디어	대기업의 엔지니어, 전문 멘토단이 직접 참여하여 기술사업화, 정보공유 등을 통한 조기사업화
일반 아이디어	사업화 가능성, 센터별 전문분야, 제안자의 희망 등을 고려하여 멘토링 후 선별하여 집중 지원
기술창업	출연(연)의 중소·중견기업 지원사업인 기업공감 원스톱 서비스 등을 통해 지원

○ 아이디어 선정위원회 등을 통해 **아이디어 성숙 단계별**로 **추진·탈락 시스템을 구축**하고, 창조경제혁신센터에 **파이낸스 존***(Zone)을 설치

* 예) 전북 창조경제혁신센터 : 산은·기은·신보·기보 등 5개 정책금융기관 직원들이 상주하면서 창업·중소기업에 대한 기술금융 안내 및 지원

○ 아이디어 사업화 트랙을 통과한 사업에 대해서는 **공영 TV 홈쇼핑, 우체국 쇼핑** 등을 통해 **마케팅을 지원**

- **대기업의 마케팅 수단**을 통한 혁신센터 보육 기업 홍보

○ KIC(Korea Innovation Center)*, 혁신센터별 전담 대기업 연계 프로그램, 주요 해외 투자자 연계 유치 등을 통해 **글로벌 진출까지 지원**

* 스타트업·중소·벤처 기업에 정보·컨설팅·마케팅 등 현지 지원(미국, 북경 등)

3 (**혁신자원 연계·활용**) 지역의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빠른 시간 내에 사업화될 수 있도록 **혁신센터를 중심으로 지역의 혁신자원**을 **연계**

○ **창조경제혁신센터와 온라인 창조경제타운**이 멘토 풀(pool)과 아이디어 등록·관리 시스템을 **공유**

○ **군 보유 장비 활용,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, 대학생 발명·창업 동아리의 참여 확대 등** 아이디어의 사업화·창업 지원 강화

○ **혁신센터가 '혁신코디네이터'**로서 창업보육센터, 중소기업통합지원센터, 수출지원센터 등 기존 지역 **혁신기관과의 연계 추진**

○ '창조경제혁신센터장 협의회' 등 **전국단위 네트워킹을 구축**하여 교육·시제품 제작, 공모전 공동 개최 등 센터간 역할 분담

○ 작년 4개 지역 총 1,600억원 규모의 창조경제혁신센터펀드(창업·벤처기업 투자)를 17개 지역 **총 6,000억원** 규모로 확대

○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 촉진 및 창조경제타운 이용자의 아이디어 사업화 소재 다양화를 위해 **공공데이터포털**(www.data.go.kr) **연계 추진**

- 온라인 **창조경제타운 內 공공데이터 활용 공간** 마련

-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**다양한 아이디어 제안을 촉진**하고 서비스 창출로 이어지도록 **멘토링**(전담 멘토단 구성·운영), **앱개발 지원환경 연계**

4 **(특화형 거점 구축)** 지역의 혁신 역량을 활용하기 위한 **민간 자생적 허브**와 기존 산업의 창조산업화를 위한 **시범·실증 사업 거점 구축**

○ 선도 벤처가 밀집된 **판교**에 **창업 및 ICT혁신 인프라** 구축, 게임 스타트업 인큐베이팅 등 **혁신적 창작생태계·클러스터**를 육성하는 창조경제밸리 조성

- 산학연 융합연구 및 사업화 거점, 한국 경제발전 경험의 공유·협력 등을 위한 '**글로벌 창조지식과학단지**(**홍릉**)'조성도 추진

○ 첨단 기술을 농업과 접목한 스마트 농촌마을 조성 등 **창조농업 거점**, 도시 내 유휴 공간과 노후 시설에 창업, 디자인 등을 도입하여 **창조계층이 모이는 창조도심 등**의 거점 구축 등

5 **(창조경제박람회 내실화)** 창조적 **국민들이 직접 참여**하고 **체험**할 수 있는 창조경제 **축제의 장 '2015 창조경제박람회'** 개최

○ 창조경제혁신센터, 미래성장동력 등 민관과 정부의 창조경제 성과 및 사례를 종합·소개하여 **국민의 공감대 확산 및 참여를 촉진**

(2) 역동적 기업생태계 구현 : 양적지원 ⇨ 질적지원(기술창업, 성장 지원)

1 (창업) 창업의 질(質)*을 높이기 위해, 고급 기술창업을 촉진하고 「Start-up Valley」 조성

* OECD 34개국 중 우리나라의 기회형 창업 비중(21%) 순위는 최하위

○ **창업자 특성**에 따라 **맞춤형으로 지원***하고 **교수·연구원 창업제도**를 **개선****하여 **고급 기술창업자 5천명을 양성**

* 창업선도대학, 청년창업사관학교, 스마트벤처창업학교, 창업인턴제 등

** 휴·겸직 창업 특례 기관에 정부출연 및 재투자 기관 포함('15.6)

○ 서울 역삼동에 **엔젤투자사와 창업팀이 공동입주**(160개팀, ~'17년)하는 **「하이테크 창업캠퍼스**(10,000m²)**」** 설치·운영



- **'창업기획사'** 방식의 **기술창업자 양성 프로그램**을 활용하여, 창업캠퍼스 입주팀별로 **최대 3년간 10억원**까지 지원하고,

* 민간(대기업, 엔젤 등)과 공동으로 R&D, 투자 등을 패키지 지원(최대 3년간 10억원)

- 마루 180, 디캠프 등 **민간의 선도적 창업엑셀러레이터와 협력**하여, **실리콘밸리式 네트워킹 환경**(→ **Start-up Valley**)을 조성

2 (도약) 창업 3~4년 이후 사업화 단계에서 맞는 "죽음의 계곡"을 극복할 수 있도록 R&D·벤처투자·판로 등 종합지원

○ **R&D·사업화·융자** 등의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**'죽음의 계곡'에 직면한 도약기 기업을 중심으로 운영**

- **(R&D·융자)** 창업 초기제품 고도화를 위한 **R&D 투자를 확대**('14. 1,400→'15. 1,600억원)하고, 시설·설비투자 등에 **1.4조원(융자) 공급**

- **(사업화)** 「디자인·금형 개선→ 해외현지화 R&D → 양산자금」을 일괄 지원하는 **「창업도약 패키지 프로그램」** 신설('15. 1,100억원)

○ **중국** 등에 대한 **해외진출펀드**를 **조성**하는 등 '벤처·창업자금 순환 단계별'로 **2조원***의 **벤처펀드**를 확충

* 마이크로 VC펀드(600억원), 중국진출펀드(5,000억원), 외자유치펀드(1,000억원), 세컨더리 펀드(3,000억원), 선배벤처인 청년창업펀드(1,000억원) 등

○ 양산에 성공한 **창조적 혁신제품**의 원활한 **시장진입**을 위해 **온·오프라인 통합 유통플랫폼** 구축('15.6)

- **(방송·온라인)** 창조제품 중심의 **공영홈쇼핑을 조속히 설립**하고, 소셜커머스 등 온라인 쇼핑몰 입점 등을 지원

- **(오프라인)** 행복한백화점(서울 목동) 등 **14개 정책매장에 "한국판 도큐핸즈*"를 개설**('15.9)**하여, 창조제품 1만개** 발굴·입점

* 창의적 아이디어 상품 전문 소매점(일본, '76 설립)으로, '13년말 매출 842억엔

○ 또한, **공공조달**을 통해서도 **창조적 혁신제품의 수요를 견인**하기 위해 중소기업 제품 **공공구매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**

- 중소기업 **우선구매 물품 입찰**을 기존 최저가 낙찰제에서 **적격심사 방식**으로 개선('15.6)하고, **다수공급자계약**(MAS) 2단계 경쟁의 **다량 납품할인율 상한선**(10%)**을 설정**('15.1, 조달청 협업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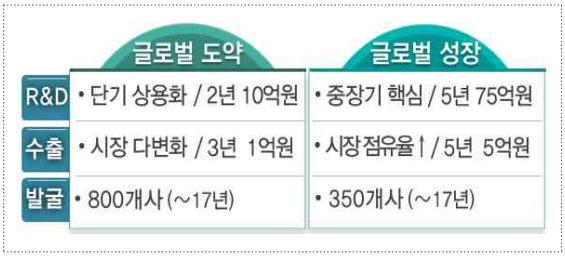
- 중소기업 **공공구매 제도 위반기관**에 대한 **과태료 부과기준**을 마련('15.6)하고, **개선권고 미이행 기관**에 대한 **감사청구제도 신설**('15.9)

3 **(성장·글로벌)** 중소→중견기업으로의 **성장걸림돌을 제거**하고, 중견기업의 **글로벌 전문기업화**를 촉진

○ 중견기업법 시행('14.7)에 따라 중장기적인 성장비전에 기초한 **「제1차 중견기업 성장촉진 기본계획」**을 수립('15.2)하고,

- '중소-대기업'을 **이분법적으로 구분하는 법령**을 **성장친화형으로 개편**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('15.3)

○ 정부의 히든챔피언 육성 프로그램 4개*를 **2단계** (글로벌 도약 → 성장)로 **통합·운영** ('15.3) 등 **'한국형 히든챔피언' 본격 육성**



* 지역형 강소, 글로벌 강소, 월드클래스300 (이상 중기청), 글로벌 전문기업 (산업부)

- 또한, 민관합동 「**(가칭) 히든챔피언 지원협의체***」을 구성·운영 ('15.3)하여, 기관 단위로 운영되는 **지원시책을 연계하고 공동 지원**

* 히든챔피언 육성 (輸銀), 코스닥 히든챔피언 (거래소), Trade Champs club (무보) 등

4 창조경제를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등 생업현장으로 확산

○ **문래동식 소공인특화지원센터**를 확대 ('14, 8개 → '15, 25개)하고, 소상공인 **생애주기별** (창업 → 성장 → 재기) **맞춤형 지원**을 **강화**

* (창업) 창업과밀지수 제공 등 → (성장) 「자율상권구역 지정·운영 법률」 제정 등 → (재기) 희망리턴 패키지 도입 (컨설팅, 취업알선·장려금 지급 등) 등

○ **전통시장에 디자인·기술·문화** 등을 **접목**하여, '17년까지 **특성화 시장 375개를 발굴·육성**

5 중소기업 정책의 실효성 및 수요자의 정책 접근성을 제고

○ 「통합관리시스템」을 활용한 매트릭스 분석을 통해 **지원사업 및 기관의 성과를 도출**하고 **중복사업** 등에 대한 **효율화 방안** 마련

- 분석결과는 **차년도 예산** 등에 반영하여 **정책의 비효율을 제거**

○ 수요자 **맞춤형 정책정보 제공*** 및 지원사업의 **신청서류 간소화****를 통해, 누구나 **쉽게 정책을 찾아 이용**할 수 있는 환경 조성

* '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'과 '중소기업 정책정보시스템'을 연계하여, 기업지원이력에 따른 맞춤형 정책정보 제공 ('15년말)

** (창업지원사업) 평균 8종 → 5종, (정책자금) 9종 → 2종

(3) 창조적 금융생태계 활성화 : 안정적 ⇨ 모험적(실물·금융 선순환 구조)

1 기업의 「창업-성장-회수」 단계별로 촘촘한 금융지원체계 구축

○ 성장사다리·모태펀드 등 투자자금 **3조원 집행**,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연계한 **'창조경제 혁신센터 펀드(6,000억원)'** 조성 등 **창업 투자기반 확대**

○ **중기 패스트트랙* 기한 연장**, 자산관리공사의 **'자산매입 후 임대 프로그램(1,000억원)'** 활용 등을 통해 **일시적 경영애로 기업을 신속지원**

* 일시적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한 유동성 지원프로그램

○ **'중기M&A 특화 증권사(IB)' 육성, 중기 M&A펀드 조성(3년간 1조원), K-OTC 2부 신시장* 조성** 등 투자자금 회수시장 확대

* 벤처·중소기업 등 비상장법인 주식을 전문적으로 거래하는 시장

- '15년 상반기중 '모험자본 활성화 방안' 마련 예정

2 창조경제 지원을 위해 **'15년중 총 180조원*의 정책금융 공급**

* 산은 63조원, 기은 56조원, 신보 41조원, 기보 19조원 등

○ 특히, 유망서비스업 등 미래발전 가능성이 높은 **신성장 산업에 100조원 규모의 자금을 공급**

○ 인프라 구축 등 대형 투자프로젝트를 중점 지원하는 **기업투자촉진 프로그램('17년까지 30조원**(산은 15조원)) 가동

○ 창업·벤처기업에 대한 **투·융자 지원을 대폭 확대**('14년 6.5조원 → **'15년 10.5조원**)하는 등 **통합산업은행의 투자기능 강화**

3 대출중심에서 투자중심으로 전환하는 '기술금융 3.0' 추진

○ '15년중 기술신용평가(TCB) 대출 **3만2천건, 20조원 이상 추가 공급**

○ **'기술가치평가 투자펀드'**를 조성(3,000억원)하여 기술기반 투자 확대

○ **신규 IP펀드 조성(1,000억원 이상), 특허관리전문회사(NPE) 육성**

4 **연대보증면제를 확대**하고 실패기업의 **재도전 환경을 조성**

○ 우수 창업자 **연대보증 면제프로그램 실효성을 제고***하고 이미 설립된 우수기업**의 **경영주 본인의 보증의무 면제**

* '14.2월 이전 창업자 적용, **가산보증료 폐지**, 연대보증 면제기간 제한 폐지 등
** 보증심사 우수기업 연대보증 면제 (보증 공급액의 약 20% 수준 추진)

○ 재창업지원 기업과 관련한 **불이익한 신용정보 공유를 연기**하고 정책금융기관간 협업을 통해 **재창업 신규자금 공급* 확대**

* 향후 5년간 재창업지원 융자(최대 1조원), 창업지원 보증(최대 0.5조원) 추진 등

5 **IT와 금융의 융합**을 통해 **핀테크(Fin-Tech) 산업** 육성

○ 신규 전자금융서비스에 대한 '**보안성심의**' 및 '**인증방법평가위원회**'를 **폐지**하고 지나치게 세세한 금융보안 관련 **과잉규제**를 **개선**

* '14년 전자상거래 결제 간편화를 추진한 카드사·PG사에 이어, **'15년**에는 **은행·증권사 등의 금융거래**에서 **ActiveX 제거** 및 공인인증서 사용의무 폐지 추진

○ 실명확인 방법의 합리적 확대 등 **「인터넷 전문은행」** 방안 마련

○ 핀테크 산업에 대한 정책금융기관의 **지원자금 조성('15년 2,000억원 이상)**

○ 관계부처 협업(금융위, 금감원, 미래부, 중기청 등)으로 **핀테크 지원센터***를 **설치**하고 **창조경제혁신센터**와 **연계**하여 운영

* **자금지원, 행정·법률 자문**, **연구·조사** 및 **애로 상담 서비스** 제공

6 **금융혁신, 제2단계 금융규제개혁 등** 강도높은 **금융개혁을 추진**

○ **'은행 혁신성 평가' 추진,** 금융감독당국의 **'감독·검사' 관행 개선** 및 **칸막이 규제 완화** 등으로 보수적 금융관행을 끝까지 혁파

○ 창의적 금융인을 우대하기 위해 **은행 내부평가체계 구축, 정책자금 인센티브 부여, 금융의 날 제정** 등 추진

2 선제적 미래대비 투자

융합 (Convergence)	새로운 **산업**을 창출하고 기존 산업을 스마트화하는 **"미래대비"**

◇ 제조 현장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**스마트 공장 1천개 보급**

◇ 사이버 안전 대진단 등 **보안 산업 신시장 창출**('17년까지 2배 규모)

◇ 디지털 영토 확대를 위해 **SW글로벌 전문기업 육성**('14년 20개 → '17년 50개)

◇ '17년까지 바이오의약품 5개, 융합 의료기기 2개 출시 목표로 올해 5,600억원 투자

◇ 태양전지·연료전지 등 **기후변화 기술개발**(1조원 투자) **및 실증**(친환경 에너지 타운)

◇ 40여개 공공 연구기관이 기업의 기술수요를 지원, **'기업공감 원스톱 서비스'**

◇ **SCI 논문건수 위주 평가 금지 및 장롱특허 최소화**

◇ **다채널방송(MMS), 스마트 미디어** 등 신규 방송서비스 도입

◇ **칸막이식 방송규제의 총량제 개선** 및 가상·간접광고 규제 완화

(1) 미래성장동력 창출 : 주력산업 ⇨ 주력산업 스마트化 + 신성장동력

□1 「**제조업 혁신 3.0**」 및 부처협업 기반의 **ICT 융합 확산을 통한 주력 산업 스마트화**

○ **(ICT 융합·스마트화)** '**창조 비타민 2.0***'을 '**14년 57개**에서 '**15년 90개로 확대**하고, 제조 현장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**스마트 공장****을 '**15년 1천개를 시작으로 '17년 4천개, '20년 1만개까지 보급**

* 부처공동기획을 통해 시범사업·R&D·교육 및 성과 확산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
** 제품 설계, 생산, 유통 등 전과정을 ICT기술로 통합, 비용절감 등 효과

○ **(고부가가치화)** 주력산업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해 **스마트·친환경 등 핵심 소재 부품 개발**에 '**17년까지 2,400억원을 집중 투자**하고,

- 스마트카(자동차), 친환경 LNG추진선(조선) 등 산업별 차세대 제품 개발로 세계시장 주도권 확보

2 5G 등 선도형 R&D 및 인프라 고도화로 **ICT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**하고, **SW 등 디지털 파워로 신산업·신시장 창출**

○ **(ICT 산업)** ICT 핵심기술 선점을 위한 **선도형 R&D에 '15년 7,040억원을 투자**하고, **ICT R&D "Fast-Track"** 제도*를 도입

* ICT R&D 기획에서 지원까지를 기존 1년에서 3개월 이내로 단축

- '20년 상용화를 목표로 한 **5G 기술 개발*** 및 **기가인터넷 보급 확대**('15년 40%→'17년 90%) 등 인프라 고도화

* '15년 로드맵 확정, '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시연

- '14년 ITU 전권회의 성공 개최에 이어, **미래 유망분야* 표준화 선도, ICT 글로벌 협력단 운영** 등을 통해 패키지형 해외진출 지원

* 5G, 사물인터넷(IoT) 등

- '15년 1분기 중 ICT산업의 근본적 체질개선 전략을 담은 **「ICT 경쟁력 강화 종합전략」**을 마련

○ **(SW 신산업 육성 및 디지털 영토확대) IoT 실증단지 조성** 등을 통해 IoT·빅데이터·클라우드 산업을 SW기반 신산업으로 육성

- 글로벌 SW전문기업('14년 20개 → '17년 50개) 및 유망 디지털콘텐츠 기업을 육성(펀드: '14년 1,000억원 → '15년 2,000억원)하고 공공사업의 **민간시장 침해 여부**를 **사전 검증하는 SW영향평가제도를 도입**(6월)

- 기업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와 핫라인을 구축하고(2,000명), **사이버 안전 대진단**(400개 기관)을 통한 수요 창출 등으로 **'14년 7.6조원 규모인 보안산업**을 **'17년 2배**(14조원) **규모로 육성**

※ 주니어화이트해커(정보보호 특성화대학 3개신설, 120명 양성) 등 보안리더 양성

3 **국내 강점분야를 중심으로 태동기 미래 바이오 시장 선점**을 위해 **'15년 약 5,600억원 집중 투자**

○ **(R&D)** '17년 세계시장 톱10 진입*을 목표로 **줄기세포 및 유전자 치료제, 융합의료기기를 집중 개발**하고, 치매조기진단 등 **새로운 서비스 창출이 가능한 기술개발 지원을 확대**

* '17년까지 바이오의약품 5개, 융합 의료기기 2개 세계최초 출시

○ **(시장 조기 진입) 임상 인허가 단축**을 위해 6개 병원에 기술검증 플랫폼을 운영하고 품목별 식약처 전담도우미를 지정(5개 품목)

○ **(제품개발 및 수출)** 기업의 생산 및 수출 촉진을 위해 바이오-금융 투자전문인력을 양성하고, 해외 37개국 시장정보를 통합 제공

4 현실화 된 기후변화 문제를 기회로, **온실가스 감축**과 **기후·에너지 시장 확보**를 위한 R&D 등에 '15년 약 **1조원을 투자**

○ **(기술혁신)** 에너지 저소비·청정에너지 등 분야에서 2020년까지 매출 216조원, 세계시장 점유율 13%, 기술경쟁력 세계1위 대비 93% 달성을 목표로, 세계 시장 선점이 가능한 **핵심기술과 산업모델* 중점 개발**

* 태양전지, 연료전지, 바이오에너지, 전력IT, CCS(CO_2 포집·처리), 이차전지, ESS(energy storage system)+신재생융복합, V2G(vehicle to grid)

○ **(산업화 지원)** 개발기술 실증 및 사업모델 조기 발굴을 위해 **친환경 에너지타운 구축**('15~, 진천·광주·홍천), **제로에너지 빌딩** 등을 추진

- 민간주도의 시장 형성 촉진을 위해 **배터리 리스사업을 추진하고 제주지역에 전기차 충전소**를 확충

5 미래산업의 **공통 기반기술**이 될 **나노 기술**과, **국민안전 확보** 및 **재난안전산업 육성**을 위한 **재난안전 기술**을 개발

○ (**나노**) 매출 세계 2위 나노산업 강국을 목표('20년)로 소자·센서 등 7대 애로기술을 중점 개발하고, '17년까지 50개 기업의 매출 3천억원 창출을 목표로 하는 **우수 원천기술 상용화 프로젝트** 등 추진('15년 5,800억원)

○ (**재난안전**) 구난용 신기술 개발, 현장수요를 반영한 제품·서비스 패키지 실증, **교통·의료 등 주요시설('15년 20개) SW 안전진단을 통한 신수요 창출** 등 R&D 및 실증, 신시장 창출을 촉진('15년 6,000억원)

⑥ 성장동력 재점화와 미래 원천기술 확보를 뒷받침하기 위해 **국가 R&D를 혁신하여 투자의 효과를 제고**

○ (**전략적 국가 R&D 투자**) '**국가 중장기 기술개발투자 로드맵**'을 제시하고, 정부와 민간의 R&D 활동 **상호 연계 및 역할 분담*** 추진

* 주요사업별 플래그십프로젝트, 징검다리프로젝트 등

○ (**대학·출연(연)의 기업지원 허브화**) 40개 전문연구기관이 단일창구를 통해 기업의 기술수요를 지원하는 「**기업공감 원스톱서비스**」 실시

- 연구소기업 확대, 창업엘리트 기술창업교육 강화 등을 통해 **특구, 특성화대, 출연(연)의 기술창업**도 강화

○ (**R&D의 질적 수준 제고**) **SCI 논문건수 위주 평가를 원칙적으로 금지**하고, 사전심사 강화 등을 통해 '**장롱특허 최소화**', 도전적 연구를 위한 「**X-프로젝트**」 등을 추진

○ (**지속 성장기반 확충**) **기초·거대과학** 연구를 **안정적으로 지원***하고, Data 과학자 등 **현장중심·문제해결형 과학기술인력**을 육성

* '15년 기초 1.3조원(6.1% 증), 거대과학 1.5조원(7.6% 증)

(2) 방송 산업 활성화 : 칸막이식 규제 ⇨ 제도개선 + 신서비스 도입

① 방송시장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새로운 방송서비스를 도입

○ **UHD** (Ultra High Definition)의 경우, 작년 세계 최초 유료방송 상용화에 이어 올해는 **지상파 정책방안을 마련**하고, 민·관 합동 펀드(90억원)를 조성하여 콘텐츠 확보도 지원

○ 무료 교육채널인 EBS의 초·중등 교육 채널을 중심으로 **다채널 방송 (MMS)*** **시범 서비스 실시**

* Multi Mode Service : 1개 채널에서 2-3개의 채널을 제공

○ 판매에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 제품과 농축수산물의 판로를 확충하기 위해 **공영TV 홈쇼핑 채널 신설**

② 인터넷 기반 OTT (Over The Top)*, 디지털 사이니지** 등 스마트 미디어를 육성하여 세계시장을 선도

* 인터넷 등에서 방송 콘텐츠를 제공 (예 : 티빙, 푹, Netflix, Hulu 등)
** 디지털 디스플레이를 통해 정보와 광고를 제공

○ **실감미디어 등 5대 기반기술*** **개발**을 통해 R&D 투자여력이 부족한 **중소 미디어 기업**을 **지원**하여 혁신 주도

***** 실감미디어, 공간미디어, 인터넷오브미디어, 감성미디어, 광고 프레임 워크

- 일반인·벤처 기업의 아이디어를 발굴, 지상파·유료방송·스마트TV와 연계하고 '**스마트미디어 이노베이션 센터**'에서 **아이디어를 상용화**함으로써 현장과 밀착된 사업화 지원

○ 시청 행태 변화에 따라 **TV 외에 스마트폰, PC, VoD 등을 포함**하여 **통합 시청점유율을 시범조사**하고, 조사 결과를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정책방안 마련

③ 한류 재도약을 위해 콘텐츠 역량을 강화

○ 해외 콘텐츠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중국의 경우, **한·중 FTA 후속조치**로 **시청각물 공동제작 협정 체결을 추진**

- 또한, 드라마·다큐 등 공동 제작은 물론, **펑요우(朋友) 프로젝트**를 통해 **방송 및 디지털 콘텐츠 교류 협력 강화**

○ **아세안**의 경우에는 **드라마·K-pop**에서 나아가 패션·뷰티·음식 등 **新한류 콘텐츠**를 **홈쇼핑·IT 솔루션과 연계하여 진출**

○ 한편, 디지털 콘텐츠 랩을 통해 콘텐츠 제작과 사업화를 지원하고, **상생의 외주제작 생태계를 조성**하는 등 **콘텐츠 기반**을 **확충**

4 방송 콘텐츠 투자 확대를 위해 안정적 재정기반 마련

○ 방송 광고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세계에서 거의 유례가 없는 현 **칸막이식 방송 광고 규제***에서 **방송 프로그램 편성시간 당 총량제로 개선**하고, **가상·간접 광고 규제****도 **완화**

* 방송 프로그램 광고·토막광고·자막광고·시보광고 별로 시간과 횟수 규제

** 가상광고 : 스포츠 프로그램 외에 교양, 오락, 스포츠 보도에 확대
가상·간접광고 : 허용시간을 5/100에서 확대 (유료방송)

- 규제 개선(안)은 공청회 등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쳐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되, 지상파·유료방송 간 차별성은 유지

○ 공영방송 재원을 정상화하고 방송 산업 전반의 콘텐츠 투자가 늘어날 수 있도록, 34년간 제자리인 **KBS 수신료를 현실화하는데 노력**하는 한편, 유휴자산 조정 등 자구노력과 **공적책무를 촉구**

5 시장 질서를 확립하여 경쟁 활성화 및 역동성 제고 유도

○ **지상파와 유료방송** 간 재송신 분쟁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**분쟁 조정 기능을 강화**하여, 사업자 간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방송 중단 등으로부터 시청자를 보호(방송법 개정)

* 분쟁 사례 : 지상파-위성방송 간 재송신 갈등으로 HD방송이 49일간 중단('11.4)

- 이를 위해 방통위가 직권으로 조정을 개시하고, 방송중단 임박 시 30일 범위 내에서 방송 유지·재개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함

○ 한편, 최근 이동전화·인터넷과 유료방송을 결합판매하면서 '유료방송 공짜 등' 시장을 왜곡하는 마케팅이 벌어지고 있어, **불공정 행위 규제 기준을 마련**하고 **허위·과장 광고 행위**를 **점검**

- 아울러, 대형사업자의 콘텐츠 끼워팔기도 조사

3 전략적 해외진출 촉진

도전 (Challenge)	새로운 **시장**을 개척하고 확대하는 **"해외진출"**

◇ 해외진출 촉진으로 **수출 6,000억불, 외국인투자 200억불 유치** 달성

◇ **China Desk**를 설치하여 **중국내수 시장 진출기업 원스톱 지원**

◇ **FTA 경제영토**(세계 GDP의 73%)를 활용, **'동북아 비즈니스 중심'** 도약

◇ **중소·중견기업의 FTA 활용률 제고** : '14년 60.4% → **'15년 65%**

◇ 문화 콘텐츠·보건의료·ICT 등 해외진출 다양화 및 **청년 1만 2천여명 해외진출**

◇ 무역·기술 전문인력 지원 등 **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적극 추진**

◇ 글로벌 온라인 쇼핑몰 입점 확대(7개몰, 1,500여개사) 등 **전자상거래 수출 활성화**

(1) FTA의 전략적 활용 및 네트워크 확대 : FTA 체결 ⇨ FTA 활용

1 한·중 FTA 발효에 대비하여 중국 내수시장을 본격적으로 개척하기 위해 **China Desk**를 **설치**('15.3월)하여 **원스톱으로 지원***해 나갈 계획

* China Desk를 통해 원산지 관리·수출시장 개척·비관세장벽 해소 등 종합지원

○ 중국의 주요 권역에 **중소기업 전용매장**을 **확대***하고, **현지 대형 유통망 및 로컬 유통망과 연계**하여 우리제품의 중국시장 유통 지원

* 중소기업 전용매장 : ('14) 3개(칭다오, 베이징, 정저우) → ('15) 5개

○ **농수산식품·소비재 등 한·중 FTA 유망 품목**을 **개발**하여 FTA 활용을 지원하고, **한류 콘텐츠의 높은 인기를 활용**해 對중국 **서비스 진출** 강화

2 FTA 플랫폼을 활용한 중국기업의 글로벌시장 진출 거점, 제3국 기업의 중국向 비즈니스 거점化를 통해 **동북아 비즈니스 중심 도약**

○ R&D·창업, 물류, 문화콘텐츠, 금융 등의 분야에서 기 구축된 인프라와 FTA 플랫폼 효과를 연계하여 중국과 글로벌 기업의 투자를 유치함으로써 동북아 허브로 도약 추진

○ **경제자유구역·새만금 등** 경제특구에 대한 규제완화와 맞춤형 인센티브 지원 등을 통해 투자매력도 제고도 병행

3 **중소·중견기업의 FTA 활용률**을 **65%까지 제고**('14년 60.4%)하고, **신흥 유망국과의 상생형 FTA 추진**을 통해 **FTA 네트워크 지속 확대**

○ **FTA 미활용기업에 대한 안내 및 컨설팅 지원**, 농수산·생활용품 등 **활용부진 업종 특화 지원, 원산지 기준에 부합하는 新제품 개발 지원*** 등을 통해 중소·중견기업의 FTA 활용률 제고

* 원산지기준 관련 대응사례 (A 직물제조회사)
: 주생산품이 한미FTA의 '얀 포워드(yarn forward)' 원산지 적용기준으로 FTA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어, '관세 즉시 철폐 품목'에 해당하는 직물을 새로 개발하여 수출

○ TPP, RCEP 등 **아태지역 지역경제통합에 적극 대응**하는 한편, **기존 FTA**(ASEAN, 인도 등)의 **활용도 제고를 위한 업그레이드, 중남미 등과 FTA 조기 협상** 및 **중앙아·아프리카 등과 공동연구** 추진

(2) 정상외교를 통한 해외진출 촉진 : 제조업 ⇨ 다변화(콘텐츠, 보건의료 등)

1 기 순방지역 등에서의 추가 성과 창출, 유망 신흥지역에 대한 정상외교 확산체계 마련 등으로 **정상외교 성과를 심화·확산**

○ **정상방한 초청, 고위급 협의체 정례 운영** 등을 통해 수주를 지원하여, **UAE 원전운영계약 등 주요 프로젝트 100억 달러 이상 수주 추진**

○ **유망 신흥지역 대상 정상외교**를 통해 에너지·인프라 및 공공부문 진출을 확대하고, **기업수요를 반영한 사전기획, 민관 공동의제 발굴** 등으로 성과 극대화

○ '경제외교 성과확산 협의회' 구성, 성공사례·지원정보 홍보강화(가이드북 배포) 등, **정상외교 성과 공유·확산체계 마련**

2 **문화콘텐츠·보건의료·ICT 등**으로 **해외진출 분야**를 **다양화**하고, **진출방식**도 **제3국 공동진출, 대·중소기업 동반진출** 등으로 **다변화**

* **(문화콘텐츠)** 한·중 문화산업 공동발전펀드(2,000억원) 조성, 패션 등 한류 유관산업 패키지 진출
* **(보건의료)** 병원 건립·운영, 의료정보시스템 수출, 디지털병원 및 원격진료시스템 해외진출 등
* **(ICT)** 통합 물관리 시스템, 개도국에 대한 전자정부 시스템 등 ICT 기반 수출 확대
* **(제3국 공동진출)** 중동 국부펀드, 다자개발은행(MDB) 등과 협력·연계를 통한 제3국 공동진출
* **(대·중소기업 동반진출)** 대기업 해외 유통망 활용, 대·중소기업 상생 수주사업단 활동 등

○ 아울러, **청년** 해외일자리 창출을 위해 **1만2천명의 해외 취업·창업·인턴 진출 지원**('14년 10,650명)

* (사례) UAE 원전수주와 연계, '15년 3천여명 진출 예정

(3) 중소중견기업 해외진출 역량 강화 : 대기업 중심 ⇨ 대기업 + 중소중견

1 2015년에 2,400개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를 지원하여 중소·중견기업의 수출비중 35%('14년 34%) 달성

○ **무역·기술 전문인력 100여명을 PM으로 지원**하고 **수출지원기관 협업으로 8개 기관 23개 지원사업 통합·연계** 등 **기업 맞춤형으로 지원**

○ 선진국 경기 회복세와 FTA를 활용하여 소비시장 진출 및 글로벌 기업과의 파트너링 확대 등 **해외 마케팅 지원***을 **강화**하고, **세계 최고수준의 통합무역정보(TradeNAVI)**** **제공**

* 선진국 대상 해외전시회(123회). 무역사절단(51회), GP 상담회(60회) 등 확대
** 신흥시장 중심의 정보제공 대상국 확대(49→58개국), 모바일 서비스 강화 등

○ **전문무역상사 추가 지정***을 통해 내수기업의 간접수출 확대

* ('14년) 167개 →('15년) 270여개

2 전자상거래 등 새로운 수출방식을 활성화

○ 중소·중견기업 상품의 **글로벌 온라인 쇼핑몰**(Amazon(美), 淘宝(타오바오, 中) 등) **입점 확대**, 농식품 수출 활성화를 위해 온라인몰 내 **한국식품전용관 확대*** 등 판매채널을 다양화하고,.

* 한국식품 전용관 운영현황 : (현재) 중국 1호점(b2c), 알리바바(b2b)
→ (계획) 일본 라쿠텐, 호주 ebay

○ 알리바바(Alibaba)와 **파워셀러 양성** 및 세방(Xidibuy)과 **한국관 소싱** 등 **중국 전자상거래 선도기업과 협력 확대, 인천-칭다오 간 해상배송 간이통관체계 구축** 등 전자상거래 수출기반 확충

○ **美·EU·호주 등 주요 선진국 공공조달시장 진출전략**을 **수립**하고, 중남미·CIS 등에 대한 **방산·치안·보건의료 분야 G2G 수출** 지원

○ **중소·중견기업에 대한 무역금융 지원**을 **확대***하고, **EDCF와 민간재원 결합제공** 등 해외진출 관련 효과적인 금융 지원체제를 마련

* 중소·중견기업 무역금융 지원규모 : ('14년) 74.5조원 → ('15년) 79.5조원

[토론 주요내용]

□ 업무보고에 이어 '**한·중 FTA 효과적 활용방안**'과 '**핀테크 산업 활성화 방안**'이라는 2가지 주제로 토론회를 연이어 개최하였음

□ 토론회에서는 제조업·서비스업·법조계·금융계·학계 뿐만 아니라 스타트업 창업가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하여

○ ① **한중 FTA를 활용**한 **중국 내수시장 진출**과 **외국인 투자 유치 확대** 방안, ② **ICT와 금융의 융합, 핀테크 산업**을 새로운 창조금융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**정부와 시장의 역할** 등에 대해 논의하였음

[보고의 주요 특징]

□ 한편, 이번 업무보고는 지난 13일 기획재정부, 농림축산식품부, 고용노동부 등 6개 기관이 함께한 '**경제혁신 3개년 계획Ⅰ'에 이은 경제분야 두 번째 보고**로,

○ 지난 보고가 **노동·교육 등의 분야 구조개혁**을 포함한 '**경제체질 개선'에 중점**을 두었다면, **이번 보고는** 새로운 기업, 새로운 산업, 새로운 시장의 창출을 통한 '**경제활력 제고'에 중점**을 두고 있음

□ 과거와 달리 **주제별로 이루어진 이번 업무보고**는

○ 5개 기관이 **'역동적 혁신경제' 실현의 목표**를 달성하기 위한 **각 기관의 주요 정책 위주**로 **'15년도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**하였으며,

○ 미래부 등 5개 기관은 **10여 차례 이상의 대면회의**와 **SNS를 통한 업무협의**를 통해 **보고 방향 및 과제 등을 조율**하였고, **부처간 벽을 과감히 허물고 협업**하여 부처별 보고 자료가 아닌 **하나의 보고 자료**로 업무보고를 하였음

별첨. 2015년도 「역동적인 혁신경제」 업무보고 자료(PPT)

※ '역동적인 혁신경제' 업무보고 각 부처별 담당자 및 연락처

담당 부서		담당자 및 연락처
미래부	기획재정담당관실	과장 이태희, 사무관 송완호(☎ 02-2110-2220, 2229)
	창조경제기획과	과장 권현준, 서기관 이옥형(☎ 02-2110-2070, 2074)
	연구개발정책과	과장 고서곤, 사무관 남혁모(☎ 02-2110-2350, 2355)
산업부	기획재정담당관실	과장 최남호, 서기관 손용하(☎ 044-203-5520, 5525)
	무역정책과	과장 조영태, 사무관 정승진(☎ 044-203-4020, 4025)
방통위	창조기획담당관실	과장 김정렬, 사무관 최윤정(☎ 02-2110-1320, 1321)
	방송정책기획과	과장 양한열, 사무관 전혜선(☎ 02-2110-1410, 1411)
금융위	금융정책과	과장 권대영, 서기관 권유이(☎ 02-2156-9710, 9711)
중기청	정책총괄과	과장 이준희, 서기관 이순배(☎ 042-481-4537, 4540)

역동적인 혁신경제
2015년도 핵심과제 및 성과

"역동적인 혁신경제 " 분야에서 20개 부처, 약 200건의 세부과제 도출

창조경제 구현 Creativity

혁신적 창조 인프라 확충
창조경제혁신센터 구축 완료 및 성과창출
(아이디어 사업화, 창조경제 허브)

역동적 기업생태계 구현
- 선순환 벤처 · 창업생태계 정착
- 중소기업 성장여력 확충
- 소상공인 · 전통시장 경쟁력 제고

창조적 금융생태계 활성화
- 선순환 금융생태계 구축
- 금융과 IT융합
- 금융개혁 추진

미래대비 투자 Convergence

미래성장동력 창출
- 주력산업 고도화(ICT융합, 스마트화)
- ICT산업 글로벌 진출, SW 新산업
- 바이오 등 미래산업 원천기술 확보
- 국가 R&D혁신

방송 산업 활성화
- 新방송 서비스(MMS, UHD 등) 도입
- 스마트미디어 산업 육성
- 콘텐츠 역량 강화
- 방송 재원 확충 · 시장 질서 확립

해외 진출 촉진 Challenge

FTA의 전략적 활용 및 네트워크 확대
- 한중 FTA 선제 대응
-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 도약
- FTA활용도 제고 / 네트워크 확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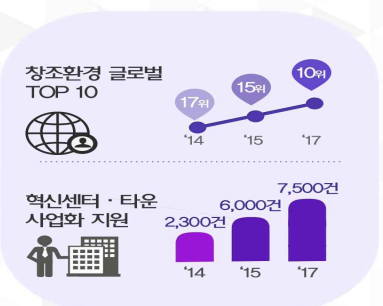
정상외교를 통한 해외진출 촉진
- 정상외교 성과 심화 · 확산
- 진출분야 · 방식 다양화

중소·중견기업의 시장개척 역량 강화
-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촉진
- 새로운 수출방식 활성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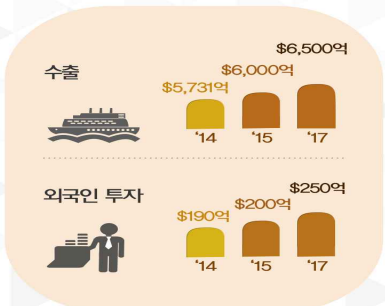
총력 협업체계 구축

부처간 협업 | 중앙-지역간 협업 | 민관 협업

경제혁신 3개년 계획 본격 이행으로 성과 창출 가시화







"역동적 혁신경제로 경제 대도약 반드시 이루겠습니다"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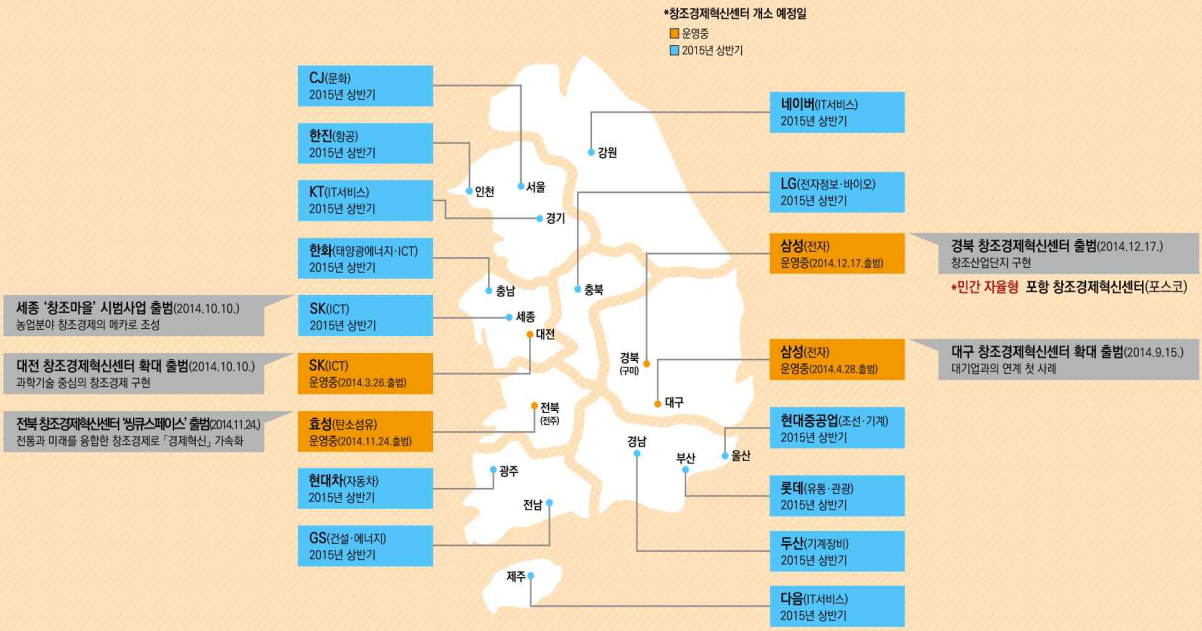
미래창조과학부 | 산업통상자원부 MOTIE | 방송통신위원회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| 금융위원회 | 중소기업청

2015년 창조경제 생태계 정책방향

미래창조과학부
Ministry of Science, ICT and Future Planning

경제혁신 3개년 계획

창조경제혁신센터 중심의 국가 혁신경제 생태계 구축



혁신적 창조경제 생태계 활성화

